

몇 년 후, 성적이 형편없던 동기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가 희망하던 직장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애초에 삶의 난이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사무치게 잘 알고 있었던 영준은 억울하거나 분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갓 입사한 영준은 면접을 볼 때 입었던 흰 와이셔츠 한 벌로 반년을 버텼다. 이틀에 한 번씩 셔츠를 빨아기며 입었는데, 퇴근 후 빨아둔 셔츠가 차마 마르기도 전에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 습기가 덜 빠진 차가운 셔츠가 맨살에 닿을 때마다 살갓에 소름이 일어났다. 축축한 셔츠 위로 이른 새벽의 찬 공기가 내려앉을 때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신입사원인 영준의 자리는 사무실 출입구 앞 책상이었다. 서랍장도 없는 책상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 좀 더 넓은 책상에 앉고 과장 직함을 달았을 때 또래보다 늦은 결혼을 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후부터 어머니의 성화로 토요일마다 선을 봤다. 영준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만한 타입이 아니었다. 가난이, 피로가, 우울이 그의 얼굴 근육을 팽팽하게 경직시켰고, 매력적인 표정을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시작도 해보지 않고 포기한 첫사랑을 곱씹으며, 영준은 몇 번 째 짐을 내서 여성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들은 미소를 지었지만, 다음 기회를 주지는 않았다. 선 자리에 나온 여성들 대부분은 커피 한잔을 비워내기 바쁘게 짧은 인사와 함께 자리를 떴다. 수십 번의 거절을 당하고, 주말마다 정장을 차려입는 일에 지쳐갈 때쯤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소매가 닳은 카키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영준은 커피잔을 매만지는 거칠고 투박한 손을 심드렁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통통한 팔다리도, 골격이 큰 체형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싫었던 것은 영준을 닮은 그녀의 표정이었다. 영준은 좀처럼 웃지 않는 지루한 얼굴을 마주 보며 잔에 남은 커피를 빠르게 비워냈다.

하지만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는 아내의 다른 여성들처럼 먼저 자리에서 일어지지 않았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영준은 망설이다가 자리를 옮겼다. 부대찌개를 먹고, 근처 공원을 걷고, 아내를 집으로 데려다주었다. 결혼 후 그 이야기를 했더니, 맞선이 처음이었던 아내는 언제 작별 인사를 건네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며 황당해했다. 버스 안의 소녀처럼 곁에 서는 것만으로도 손이 땀에 젖던 긴장감을 없앴다. 하지만 그때의 그녀는 영준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여자였다. 이만하면 되었다. 영준은 겨우 취업에 성공했을 때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독였다.

결혼을 하고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났다. 눈과 코가 영준을 그대로 빼다 박은 아이였다. 6명으로 시작했던 중소기업이 이제는 지방에 지점을 났만큼 성장했고, 장영준 사원은 장 부장이 되었다. 잘 살았냐고 묻는다면 망설이겠지만, 열심히 살아왔다고 묻는다면 한 치의 고민도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생이었다. 영준은 그것이 못내 자랑스러웠고, 서글렸고, 아까웠다.

*

조악한 식재료들이 내장 속에서 뒤섞이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듯 자꾸만 트림이 나왔다. 장 부장은 땀을 흘리며 차오른 오줌보를 비워내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화장실을 나왔다. 귀에 익은 목소리들이 웃어 재끼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 장 부장이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들은 얼굴의 웃음기를 거두었다. 자리에 앉은 장 부장이 피로한 얼굴로 벽에 머리를 기대자, 최 대리가 눈치를 살피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최 대리는 얼마 전부터 롱 보드를 배우고 있다며 핸드폰으로 자신이 찍은 동영상도 보여주었다. 신입사원은 크로키와 유희를 배우고 있었고, 김 과장은 휴가 때 가족들과 스쿠버다이빙을 했다고 한다.

장 부장은 꾸벅꾸벅 졸며 생기가 넘치는 그들의 일상을 묵묵하게 들었다. 가끔 그는 직장생활에 정춘을 갈아 넣지 않는 직원들이 아쉬웠다.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는 삶을 요즘 애들은 도통 존경할 줄 몰랐다. 그 애들은 하고 싶은 것은 뭐든 하고, 싫으면 언제든 뛰쳐나갔다. 취미생활과 여행지에 대한 담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 부장은 돼지찌개 표면에 하얗게 응고된 기름 덩어리를 털거나 바라보며 자리를 지켰다. 돼지는 고기가 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나무도 젓가락 따위가 되고 싶지 않았을 테고, 계란이 계란말이가 된 것은 끔찍한 일이다. 문득 자신의 살찐 배가 보였다. 개 목줄처럼 힘없이 늘어선 넥타이와 땀에 젖어 녹록해진 회색 양말도 보였다. 옆구리와 배에 식이 빠진 기름이 끼지 않았을 그 시절에는, 장 부장도 장 부장이 되고 싶지 않았다. 불뿔없이 늙은 직장인 따위가 되고 싶지 않았다.

나도 여행을 가고 싶었어. 여행을 가려고 사표를 쓴 적도 있다고.



그림=이형우

꾸벅꾸벅 졸던 머리를 식탁에 쿵 떨어뜨리며, 장 부장이 중얼거렸다. 한숨 같은 장 부장의 맑은 직원들의 떠드는 목소리에 묻혔다. 곁에 앉은 윤 차장만이 장 부장의 혼잣말을 듣고는 의아하다는 듯이 되물었다.

평소에 여행도 안 가시는 분이 왜 여행 가려고 사표까지 쓰셨어요?

장 부장이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힘겹게 내쉬는 숨에 술 냄새가 묻어있었다. 윤 차장이 격정스러운 눈빛으로 물 잔을 건넸다.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다. 냉수가 식도를 따라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장 부장은 싸늘한 찬바람이 머릿속을 휘저어 놓았던 3월을 기억했다. 갓 입사했을 때 혼자 살던 낯은 원룸과 그 방의 습한 공기, 벽지에 숨어있던 곰팡이 자국을 떠올렸다.

스물일곱 살이었던 영준은 버티네기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주말도 없이 야근하고, 휴가도 반납하고 근무했다. 영준은 합리적이 아니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감정들을 거침없이 잘라냈다. 하지만 정원수처럼 동그랗게 손질한 마음은 가다듬는 그때뿐, 자꾸만 불쑥불쑥 가지를 뺀고 잎을 키웠다. 입사한 지 일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영준은 사직서를 썼다. 힘겹게 펜을 움직여 서명하고는 숨을 훑 들이켰다. 하지만 오전 내내 사직서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서랍 속에 집어 넣어버렸다. 사직서를 쓰게 된 계기는 아주 사소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었던 금요일 오후, 영준은 미열과 오한을 느꼈다. 퇴근 후 병원을 찾은 그에게 의사가 물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영준은 제 몸을 찬찬히 살피며 고통을 호소했다. 아무리

두드려도 빠진 목, 어깨, 손목, 허리의 통증, 이제는 만성이 되어버린 두통과 소화불량, 눈의 이물감, 좀처럼 가시지 않는 피로. 영준은 처방받은 약을 가방에 쑤셔 넣으며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 퓨즈가 끊어진 기계처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한 발짝 내디딜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힘들어,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한 마디에 머릿속 어딘가가 파열음을 내며 부서졌다.

몸살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고 영준은 입사 후 처음으로 병가를 냈다. 종이 상자 같은 자취방에 누워 눈앞에 보이는 벽과 천장을 멍하니 응시했다. 암막 커튼 사이로 새어 나온 햇살이 그의 방을 대각선으로 길게 자르고 있었다. 빛줄기 위로 부유하는 먼지가 반짝거렸다. 하얀빛을 따라 천천히 시선을 옮기자 곰팡이가 숨어있는 벽지가 보였다. 남아메리카 대륙 같네. 처음 집을 보러온 날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 떠올랐다. 칠레, 쿠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위치를 천천히 눈으로 더듬었다. 벽지의 얼룩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 그에게 부동산 중개인은 월세를 만 원 깎아주겠다며 조심스레 제안했고, 영준은 망설임 없이 집을 계약했다.

남아메리카 대륙을 가로지르는 햇살을 보다 영준은 꿈에서 깬 것처럼 정신이 반짝 들었다. 좁고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어제처럼 살다가 나는 죽겠지. 벌떡 몸을 일으켜 창고에서 먼지가 쌓인 캐리어를 꺼냈다. 옷장의 옷을 와르르 쏟아냈다. 쫓기듯이 짐을 싸서 일어섰지만, 환관문 앞에 우뚝 선 영준은 차마 문고리를 잡지 못했다. 낯은 철문이 단호하게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걸 봤어. 그래서 며칠 뒤에 바로 사표를 제출했지.

술에 취해 몸이 고구라진 장 부장이 더듬더듬 말을 이었다.

뭘 보셨는데요?

어느새 장 부장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던 최 대리와 신입사원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퇴사한 직원을 향해 약해빠진 패배자라며 욕을 하던 장 부장이 신입사원일 적에 사표를 썼다는 사실이 우스웠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자신을 새까맣게 잊은 장 부장이 가엾었다. 고개를 든 장 부장이 몽롱한 눈빛으로 말했다.

씩, 씩이 자랐지. 창문에서.

네? 뭐가 자라요?

장 부장은 잠꼬대처럼 창문틀에서 풀이 자랐다며 중얼거렸다.

창틀 모서리에 연두색의 작은 잎이 뽕뽕하게 돌아있었다. 영준은 믿을 수 없어서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삼월이라지만 아직은 추웠다. 창문 틈의 때처럼 끼어있는 아주 적은 양의 먼지 속에서 새싹이 틈을 틔우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꼭 누르면 창틀의 먼지와 한 덩어리가 될 것 같은 조그만 풀이였다. 창틀에 손을 대보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금속의 한기가 손바닥을 통해서 전해졌다.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엉뚱한 곳에서 싹을 틔우는 그 풀이 가엾기보다는 어리석게 느껴졌다. 이것은 제가 자라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것이 분명했다. 바람이 창문을 우악스럽게 흔들었다. 정오가 지나면 해도 들지 않는 북창이었다. 창문틀에는 잎을 적셔줄 물도, 양분을 줄 줄도 없었다. 내일이면 강

풍에 바삭 말라 부서질 것이 분명했다. 영준은 무심한 얼굴로 창문을 쿵 닫았다.

하지만 예측과는 달리 그 풀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며칠 후, 영준은 양팔을 벌리고 있는 잎들 사이에서 더 작고 더 엷은 색의 싹이 돋아난 것을 발견했다. 영준은 고개를 빼고 허리를 숙여 풀을 아주 가까이에서 바라보았다. 손을 등글게 말아 풀 위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잠시라도 살이 에이는 바람을 막아주고 온기를 나누고 싶었다. 손안에서 그 풀이 몸을 떠는지 손바닥이 간지러웠다. 코끝이 시큰해졌다. 마지못해 살아내는 하루들이 쌓여가는 동안, 어떤 것들은 싹을 틔우고, 잎이 자라고, 또 시들어 간다. 무서웠다. 갑자기 조금해졌다. 심장 부근에서 무언가 툭툭 살을 찢고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영준은 책상 속의 사직서를 꺼내 제출했다.

여행은 다녀오셨어요?

모두 알고 있는 결말의 이유를 캐내려는 듯 최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여행을 갔었더라면 장 부장이 지금 이 자리에 앉을 테니, 그는 결국 떠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 장 부장은 허탈하게 웃었다.

못 갔어. 어머니가 아프셨거든.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영준은 사직서를 낼 때보다 더 공손한 태도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해야 했다. 어머니가 편찮으십니다.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사직서 철저히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비굴함보다 더 초라한 절박함이 담겨있었다. 어머니는 2년 후 집에서 눈을 감으셨다. 그날도 특근해야 했던 영준은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사직서를 썼다가 찢었지. 거래처의 이사가 회식 자리에서 육설과 샷대질을 퍼부었던 그 날, 영준은 소파에서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저도 모르게 소얼거렸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잠시 살까?

영준의 목소리에 아내가 부스스 눈을 떴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곧 아빠가 될 사람이 책 읽감도 없어?

아내가 졸음이 묻어있는 목소리로 짜증을 냈다. 영준은 아내의 부픈 배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영준은 고개를 저으며 아내를 달랬다. 임신 후잡이 부쩍 많아진 아내는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다.

십 년 동안 부었던 적금의 만기일이 다가올 때도 영준은 사직서를 썼었다. 그동안 영준은 차장으로 진급했고, 해가 잘 드는 남향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거실의 전면 유리를 통해 밀집된 주택가와 도로가 보였다. 제 뒹을 해냈다는 벅찬 기쁨이 영준의 입가에 피어올랐다. 영준은 아내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내는 거실에서 아이의 머리를 땅아주고 있었다.

나, 여행이 가고 싶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뺨은 말인데,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는 물정 모르는 아이의 투정처럼 들렸다. 아내가 영준을 싸늘하게 돌아보며 물었다.

지원이 학원비는 어떡하고? 집 대출은 안 갚을 거야?

영준은기가 죽어 힘없이 중얼거려야 했다.

그냥 해본 말이야.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안방 문을 팡 닫고 들어갔다. 영준을 팔을 벌려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결혼 십 주년을 앞두고 영준은 아내와 자주 다투었다.

그 시절을 떠올리자 장 부장은 머리가 지끈거렸다. 장 부장은 양팔을 식탁에 괴고 이마를 짚었다. 얼굴이 뜨거웠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신입사원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물었다. 한쪽 눈썹을 찌푸리고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장 부장의 얼굴을 알아채지 못한 신입사원이 물었다.

어떻게 겨울에 창문에서 풀이 자랄 수 있습니까? 물도, 흙도 없는데요.

아니야.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장 부장은 벌떡 역정을 내며, 제 말을 믿지 않는 신입사원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초점이 풀린 눈동자 위로 눈꺼풀이 자꾸만 흘러내렸다. 단호한 음성도 입 밖으로 튀어 나가자 웅얼거리며 멍해졌다.

사무실의 화초들은 영양제도 주고, 오후엔 창가에 내놓고 광합성도 시키는데, 한 달을 못 버티고 죽어 나가는...

신입사원의 말이 깨닫기 전에 썩어갈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장 부장이 휘젓는 팔에 맥주병이 부딪치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곁에 앉은 직원들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날카롭게 부서진 유리병 사이로 거품이 낀 노란 액체가 흘러내리니 바다